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여인의 추억

성경: 열왕기상 17장 17-24절

Tag:

17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8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19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왕상17:17-24)

훗씬 이전 이야기;엘리야의 가뭄선언과 아합의 수색(엘리야는 반정 부인사)

이일 이전 이야기;엘리야와 그릿 시냇가의 까마귀 (1~1.5년?) 요단 동쪽.엘리야의 고향 근처

본문 직전 이야기;엘리야와 사르밧(사렙다) 과부의 떡 이야기;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 근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난한 과부의 집에 보내심. 초등학교(아마) 아들이 있고, 아마 근처에는 시가 친척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아마 사르밧 지역은 엘리야와 아합왕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 같음.

-하나님의 재앙은 광범위한 지역을 강타하고 있었음.

-재앙에는 약자가 가장 힘겹다.

-재앙 가운데 버티는 자가 살아 남는다.

-재앙 가운데 오히려 약진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아둔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 살아 남는다.

-탕진하거나, 빛을 끌어 모은 사람들은 힘겹다.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살아 남아야 한다.

-그런데 재앙 중에는 약자가 가장 취약함. 대표적인 예가 사르밧 과부.

-애까지 팔려 밥벌이가 쉽지 않음. 쌓아둔 재산이 없어서 마지막 식사만 남겨짐.

-물 한모금(당시에 선한 사람들의 거절하지 못하는 적선)

-떡 한조각을 추가로 부탁함(기근 중에 힘겨운 부탁, 마지막 식사이므로 진심어린 적선이 될 수 있다)

-과부는 기가 막혀 사정을 엘리야에게 이야기 해 준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이야기 해 준다.

1. 두려워 말아라

2. 가서 떡을 구우라. 그런데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나누어 먹기 위해서 모두 탈탈 털어서 요리하지 말고, 밀가루를 절반 남겨두고 작은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라.)

3. 그리고 가서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떡을 다시 만들라. (왜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을까? 내외 하는가? 헌물로 받겠다는 의미.)

4.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땅에 비가 올 때까지 통에 밀가루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사르밧 과부는 바알을 섬기는 여인.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으로 믿고 있음.

-이미 비가 오지 않은지 오래 되었으므로 바알이 진노하고 있다고 믿고 있음.

-이미 나는 어제도 먹었지만, 저 사람은 어제부터 굶었을 가능성이 있음. 어차피 하루 일찍 죽게 됨. 적선이라도 하는 것이 나올 듯.

-과부는 자기와 아들이 먹을 것 중 자기가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주려고 계획한 듯 함.

-혹시 선을 베풀면 바알이 자기에게 복을 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름. 일종의 도박을 하는 셈.

-많은 목사들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좋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를 섬겨서 복을 받았다고 설교하지만, 본문 말씀은 전혀 다른 증언을 하고 있음.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낌새 없고, 다만 성경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엘리야를 위해서** 그 가정에 기적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음.

-아마도 여전히 이 사르밧 과부는 바알에게 벌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나 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밀가루를 계속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나 않을까.

-이 재앙 가운데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종으로 팔려갈수도 있고, 부잣집에 가서 구걸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떡을 먹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다니.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도 되는가, 아니면 바알이 이방인, 여호와와 선지자를 선대한다고 해서 그 마술에 의지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해서 헤코지 하지나 않을까? 불안했나 보다.

-결국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병세가 위중하게 되더니 죽고 말았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자 결국 이 여인은 폭발하고 만다.

-이 과부 여인은 단순히 아들이 죽을 운명이어서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 도데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왜 내게 오셨나요? 왜 하필 나입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이곳까지 왔나요?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없나요?-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이 여인에게에는 자신과 엘리야와의 만남이 피할 수 없는 숙제의식이 있나보다.

->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 여인이 생각날 수 밖에 없는 죄가 무엇일까? 아마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이었는지 모른다.

-그녀가 이방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바알을 섬기게 되었을지 모른다. 아니면 그 반대일지도.

-엘리야 당신을 보면 나는 사실 죄책감이 듭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생각이 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떡을 먹지만 긍정적으로 먹지 못함.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사건.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사건)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있음. 엘리야의 기적으로 굶지 않고 있음이 바알에게는 기분나쁜 일이라고 믿고 있음. 바알의 저주로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뜻.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임.

-이방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태도. 나쁜 일이 벌어지면 남탓하고, 다른 종교 탓하고, 부정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의 사람

탓하고 교회 탓한다. 전형적인 이방종교의 여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방종교에서는 욕박지르고, 죄를 들추고, 벌을 주고, 심지어 해코지한다. 부끄러운 추억 가운데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운명의 여인이 됨.

-곤란해진 엘리야. 딱히 잘못된 것 없음. 당시 어린이들은 흔히 잘 죽음. 게다가 재앙상황 아닌가? 전염병. 갑작스러운 죽음. 아이는 나약하기 때문임. 심폐소생에 대한 지식도 없음. 아무런 약도 없음.

-엘리야는 쫓겨날 판. 이제 어디로 가나.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소!

-엘리야는 당황함. 억울함. 딱히 어떤 위로의 말이나 자초지종 인과관계 해명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 다짜고짜 나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울부짖는데, 아이 죽은 어미에게 무슨 말이 필요할까?

-아이를 달라고 해서 다락으로 안고 올라감.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

-하나님이 이 집에 재앙을 내리셨나요?

-내가 거처하는 과부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다니요.

-원하건대 이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 위에 세 번 엎드렸다. (그 시대, 그 지역에서의 응급처치. 죽은 아이 살리려고 할 때 이런 방법밖에 없었나 보다. 이것이 그 시대의 응급처치. 이 응급처치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심. 단순한 기절 사고가 아니라 병사임. 며칠을 앓다가 죽었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죽었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 그 아이의 숨이 다시금 살아났다. (흔;숨)

- 엘리야는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 주었다.

- 그러자 과부 여인의 진실한 신앙고백이 나온다.
-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마술사가 아니군요.)
- 이제보니 하나님이 참 신이시군요.
- 바알은 보복쟁이, 심술궂은 신이요 속이는 가짜 신이요, 남탓쟁이.
-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하시고자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밀가루기적), 재앙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살리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 아마 이 여인은 엘리야를 따라 이스라엘로 와서 엘리야와의 인연을 끊지 않고 따랐을 것이다.
- 아멘.



## <찬양예배>

제목 : 말씀과 해석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17절

### Tag: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3:14-17)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전통적 방법;관주성경식;여전히 가장 합리적인 해석;다만 성경 이후의 세대나 세계관과의 대화는 교회사에 맡겨야 함. 교회의 역사는 성경을 텍스트로 역사를 컨텍스트로 설정함.)

말씀을 말씀으로;말씀이 텍스트, 다른 말씀이 컨텍스트  
(이단들의 설정은 단어의 의미를 세분화하고, 정비록화, 암호화, 비계시록화 하면서 사교로 빠져감. 마약과 같음. 세상에서 살지만 다른 세상을 살게 됨. 정신이상 현상.)

-말씀을 당시의 컨텍스트로 해석>말씀으로 과거를 해석.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되돌아가서 말씀을 읽음)

(성경의 컨텍스트를 현재의 가치로 해석할 경우 -오류에 빠질 수 있음. 그렇다고 말씀의 가치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

ex; 여성주의로 성경의 여성관을 해석함. 공산주의로 성경을 해석함, 동성애옹호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함.

- 말씀 중 신화를 빼고 윤리만 뽑아내서 사용 X (신신학)
- 말씀의 가치로 오늘을 해석 (말씀의 가치가 주어)
- 하나님께서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 (하나님이 주어)

(사적인 해석)

- 말씀으로 나를 해석
- 하나님께서 나를 해석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내가 하나님과 동행함

-성경 말씀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미래적 해석)

\*모든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해석의 적용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숙제)

-이기기 위한 해석(거짓말도 총알로 사용함), 비판을 위한 해석, 변명을 위한 해석, 이기적인 해석. ->자멸과 느와르로 끝남.